보 도 자 료

보도	2019.1.24.(목) 16:00	배포	2019.1.24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기정 사무관(02-2100-2832) 이영민 사무관(02-2100-2824)
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남 동 우(02-2100-2850)		권민영 사무관(02-2100-2853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0)		허 성 사무관(02-2100-2655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	민인영 사무관(02-2100-2661)
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0)		권기순 사무관(02-2100-2963)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권진웅 사무관(02-2100-2983)
	기재부 외화자금과장 이 형 렬(044-215-4730)		정규삼 서기관(044-215-4731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김명철 팀장(02-3145-7617) 조 철 팀장(02-3145-7611) 이상헌 팀장(02-3145-7590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황선오 팀장(02-3145-6710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이준교 팀장(02-3145-7455)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 진 해(02-3145-7240)		최영덕 수석(02-3145-7246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정용걸 팀장(02-3145-7447)
	금감원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 정 신 동(02-3145-8170)		황태식 팀장(02-3145-8185)
	한국은행 비은행분석팀장 이 재 화(02-750-6847)		조항서 과장(02-750-6748)
	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장 하 홍 윤(02-758-0231)		김재영 팀장(02-758-0212)
	한국증권금융 경영지원본부장 이 병 렬(02-3770-8515)		임판주 부문장(02-3770-8220)
	한국예탁결제원 국제펀드본부장 정 승 화(02-3774-3106)		정운근 부장(02-3774-3400)

제 목 :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 마련

■ 비은행권을 점검하여 '10대 잠재 취약요인'을 분석 → 대응방안 검토

- (RP시장) 익일물 쏠림(거래액의 93.4%)에 따른 차환위험 존재
  → 익일물 축소를 유도하여 단기 레버리지 의존 제어

- (MMF) 법인형 MMF를 중심으로 시장불안시 환매 발생 가능
  → 유동성 관리가 어려운 일부 법인형 MMF에 대하여 시가평가 방식 도입

- (보험사) 환헤지 만기가 짧아져 차환리스크에 노출
  →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 추가 적립

■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안정 제고

- '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' 신설 및 거시건전성 관리수단 정비

10대 잠재취약요인 대응 및 기대효과(요약)

분 야	조치 사항	기대 효과
1. RP시장	▸90% 이상 익일물 거래, 차환위험 → 기일물 확대 유도, 헤어컷 개편	▸익일물 감소·기일물 확대로 차환리스크 경감
2. 채권대차시장	▸채권대차를 이용한 고위험 거래 급증 → 중개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	▸시장규율에 입각한 거래관행 정착
3. 전문투자형 사모펀드	▸차입현황, 투자운용 상황 파악 미흡 → 정보수집 확대	▸잠재리스크 식별·분석 가능
4. MMF	▸대규모 환매요청(fund run) 발생 소지 → 시가평가 도입, 분산투자 규제 강화	▸선환매유인 감소에 따른 펀드런 위험 경감, 분산투자 규제회피 방지
5. 자산유동화	▸공시 부족, 발행자-투자자간 이해상충 → 공시 확대, 위험보유 규제 도입	▸부실자산의 유동화 제한
6. 증권사 파생결합증권	▸변동성 높은 지수로 기초자산 쏠림 → 변동성가중자산 비율 도입	▸특정지수 변동이 증권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감소
7. 증권사 채무보증·대출	▸채무보증 규모가 급증 → 채무보증 등 리스크 관리 강화	▸과도한 위험추구 방지
8. 보험사 환헤지 관리	▸외화증권 투자시 환헤지 단기화 → 환헤지 만기 편중 방지	▸환헤지 단기화 방지,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능
9. 여전사 자금조달	▸시장성 자금조달 중심 →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	▸여전업계 유동성리스크 경감
10.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	▸부동산 익스포져 증가하나, 관리 부족 →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	▸부동산시장 여건에 영향받는 익스포져 규모 파악 및 관리 가능

1 개 요

□ ‘19.1.24일(목)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**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**(’18.9월 발족)**」 마무리 회의**를 개최

○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4개월간 TF 및 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된 **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」**을 논의·확정

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회의 개요】

▣ 일시/장소: ’19.1.24(목) 16:00 ~ 17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▣ 주요 참석기관 : 금융위, 기재부, 한국은행, 금감원, 예보
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

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□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,

○ **“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”** 분야는 그동안 **국내** 뿐만 아니라 **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**이지만,

○ 금번 TF를 통해 정부, 중앙은행, 감독기관, 민간 전문가가 **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**에 대한 **인식을 공유**하고,

- **새로운 틀**을 통해 **비은행권을 조망**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

□ 우선, **금번 방안의 기본 추진방향**에 대해 설명

○ 금번 TF에서는 **비은행권 분야**를 **금융중개 행위**(activity), **비은행 금융회사**(entity)의 **두 방향에서 접근·검토**

❶ 우선, **행위 측면**에서는 소위 ‘**그림자금융**’으로 지칭되어 온 **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**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봄

- **단기로 자금을 조달**하여 **금융중개**하는 행위, **환매에 취약한 펀드 투자** 등에 대해 분석

❷ **기관 측면**에서는 우리나라 **비은행 금융회사가 지닌 특유의 취약점**을 중점 진단

-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**환리스크**가 누적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, **증권사들의 ELS 발행 현황** 등도 살펴봄

□ 그 결과, **당장 현실화될 리스크 요인**은 **현재로서는 없지만, 일부 금융중개 행위**와 **비은행 금융업 부문**의 경우 **잠재 리스크를 분석**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

- 혁신적인 투자기법 대신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증가
-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해야 하는 '시장규율'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함
- 외환시장, 해외 주식시장 변동으로 비은행권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위험 상존
- 금융유관기관의 세밀한 정보수집 체계가 아직 구비되지 못한 비은행권 금융거래 영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
- 은행권과 달리, 글로벌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권고된 수단들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도입하려는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

□ 이어서, 금번 관리강화방안의 **주요 내용을 설명**한 후 **기대효과를 설명**하고 **당부 말씀도 언급**

○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**금융시장내 '전염병'**의 **발생과 확산**을 방지하기 위한 '**예방접종**'이라고 볼 수 있음

○ 금번 방안에 담긴 **거시건전성 조치**들을 **차질없이 이행**하고, 유관기관이 **협업**하여 **취약요인을 계속 발굴·조치**해 나간다면,

- 금융시장내 **위험 발생·증폭 소지**를 줄이고 '**집단면역 체계**'를 **확립**하여 **금융안정을 제고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**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**도 **불가피하게 있을 것임**

- 그러나, 금번 조치들은 "**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부문**을 **점검**"한 결과물로,

- 개별회사 입장과 달리, **여러 전문가들**이 **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**하는 관점에서 **위험요소를 선별**하고 **대응방안을 마련**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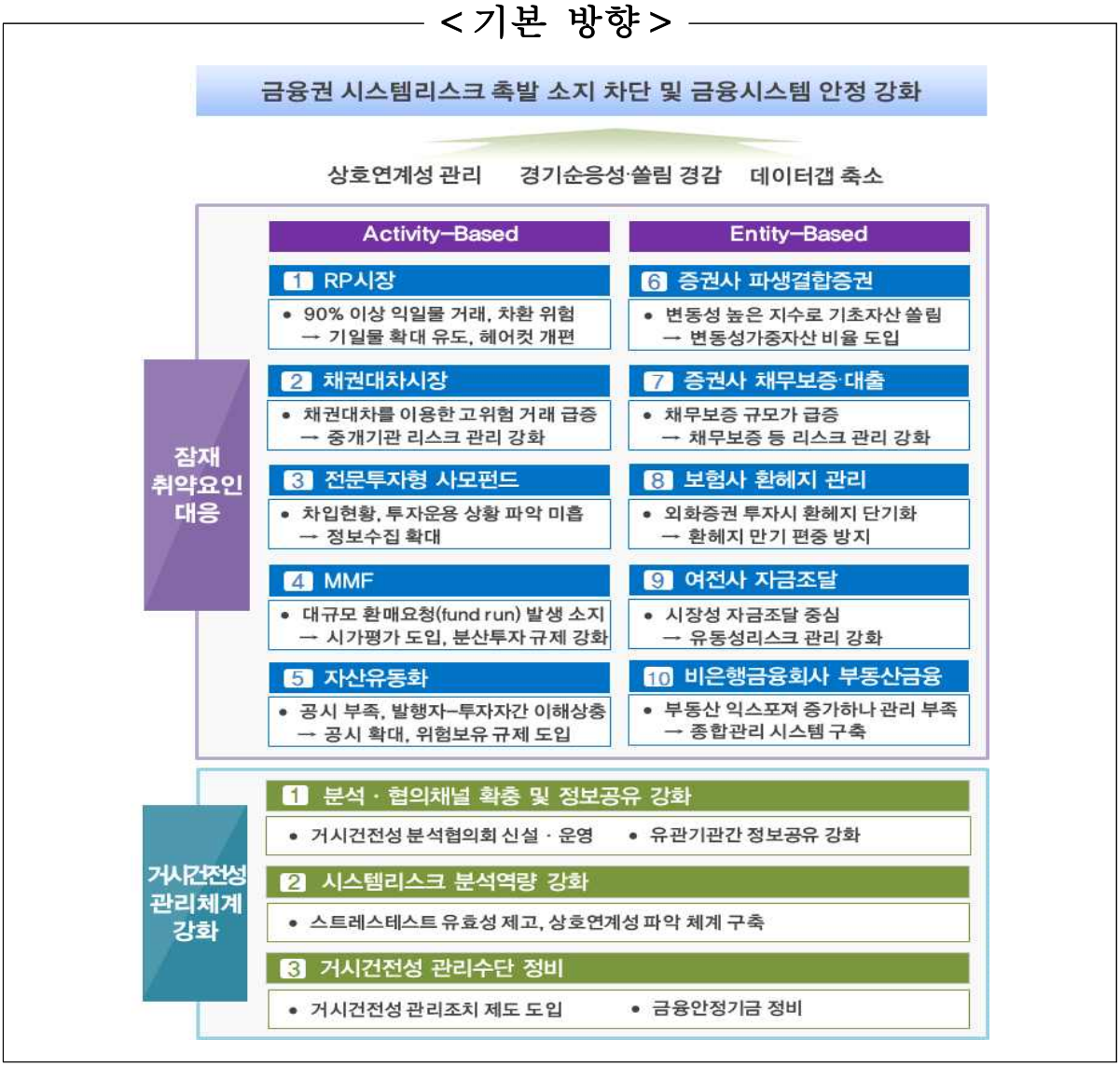
○ 앞으로 **세부적인 제도설계와 시행 과정**에서 **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할 것이며, **유예기간도 부여**하여 **개별 회사가 적응**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것임

○ **시장안정**을 위해 **필요한 대응**은 **선제적으로 준비**해야 한다는 점은 **우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**이며,

- 정부는 **오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**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**물샐틈없는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**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

3 금번 방안 주요내용

<기본 방향>



1. 비은행금융중개(activity) 안정성 제고

1 RP 시장

○ (**현황**) RP 거래가 **익일물 거래에 편중**되어 **대규모 차환리스크** 존재

- 또한, **헤어컷**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**일률적**(5%)**으로 적용**되어 신용리스크 가중

* RP거래 규모(일평균잔액) : ('15년) 38.8조원 → ('18년) 75.4조원
* 익일물RP 거래비중(%) : ('16년) 92.3 → ('17년) 93.2 → ('18년) 93.4

○ (**대응**) **증권사와 자산운용사**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**'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'**를 도입하여 **기일물 확대를 유도**

- **담보증권 특성**과 **차입자 신용위험**이 반영된 **헤어컷** 체계 마련

2 채권대차시장

○ (**현황**) **증권사, 헤지펀드**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**투자운용이 확대**됨에 따라 **금융회사-채권대차시장-자금시장**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**새로운 위험전파 경로**로 기능할 소지

* 채권대차거래 잔액(조원) : ('15말)23.8 ('16말)27.9 ('17말)48.4 ('18.10말)61.2

○ (**대응**) **이행보증**을 제공하는 **중개기관**의 **위험관리능력 제고**

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

○ (**현황**) 차입현황,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**세부적인 통계**가 **관리되지 않아**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

○ (**대응**) 헤지펀드의 **위험자산 포지션, 차입현황**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**정보수집·공유를 확대**하고 **모니터링 강화**

4 MMF

○ (**현황**) 장부가평가로 인해 **선환매유인***(first mover advantage)이 존재하고,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**특정자산에 대한 쏠림**** 등으로 인한 **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**가 잔존

* 현재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
** (예) ABCP 활용시 복수의 SPC를 통해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 → 현행 MMF 동일인 투자한도(10%) 회피 가능

○ (**대응**)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**법인형 MMF 유형***에 **시가평가**를 도입하고,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**유동화증권**의 경우 **기초자산을 기준**으로 **분산투자 규제** 적용

* 국채·통안채·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% 이하

5 자산유동화

○ (**현황**) **발행자와 투자자** 간에 **구조적인 이행상충***이 존재하며, **공시 체계가 미흡**할 경우 발행자는 **부실한 기초자산**을 이용하여 유동화하려는 **유인에 직면**할 수 있음

* 발행자는 유동화증권 발행·매각시 경제적 이해관계(skin in the game)가 소멸 → 정보비대칭시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을 유동화증권 발행에 이용할 유인 존재

○ (**대응**) **비등록 유동화증권**에 대해 **등록 유동화증권**과 **동일한 수준**으로 **공시의무를 강화**하고, **위험보유 규제도입**을 검토

2. 비은행금융회사(entity) 잠재리스크 관리

1 증권사① : 파생결합증권

○ (**현황**) **기초자산**이 **변동성이 높은 특정지수**로 쏠릴 경우, 해당 지수의 **변동성 확대**시 **파생결합증권 환매**가 급증할 우려

* 발행잔액(조원) : ('12말)51.6 ('14)84.1 ('16)101.3 ('17)90.0 ('18.2Q)101.0

○ (**대응**)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 **변동성**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**관리지표**(변동성가중자산 비율)**를 도입·운용**

2 증권사② : 채무보증

○ (**현황**) 증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**채무보증 규모가 지속 증가***

* 全증권사 채무보증액(조원) : ('11말)8.4 ('13말)16.2 ('15말)24.2 ('18.9말)33.9

○ (**대응**) 채무보증을 반영한 **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**에 대하여 **리스크관리 강화 조치**

3 보험사 :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

○ (현황) **외화증권 투자가 확대**되고 있는 반면, **환헤지 만기가 짧아지면서**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**차환 리스크** 증가

* 보험권 외화증권 운용잔액(조원) : ('13말)61 ('15말)130 ('17말)227 ('18.6말)239

○ (대응) **외화자산 운용**에 대한 **감독을 강화**하고, 환헤지 **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** 등을 개선

*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

4 여전사 : 자금조달

○ (현황) 시장성 자금조달이 **지속적으로 증가**함에 따라, **여전채를 매개**로 여전사와 他금융업권 간 **상호연계성 확대**

* 여전채 발행규모(조원) : ('15말)100.9 ('16말)110.4 ('17말)125.8 ('18.6말)137.8

○ (대응) **개별 여전사**에 대한 **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**하고, **여전업권 전반**에 대한 **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 구축**

5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금융

○ (현황) '15년 이후 비은행금융회사의 **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급증**하고 있으나, **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부재**

* 비은행금융회사 부동산 익스포져 : ('15말)151.4 ('16말)197.2 ('17말)227.5 ('18.6말)252.9

○ (대응) **부동산 익스포져**에 대한 **종합관리시스템** 구축하고,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**대출관리를 강화**

3.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

1 **(분석·협의 채널)** 금융유관기관간 '**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**'를 신설하여 **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** 및 **거시건전성 규제 운용**을 지원

※ '**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**' **운영 방안**

- **(참여)** 금융위(사무처장) 주재, 기재부,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, 민간전문가
- **(역할)** ❶주기적으로 **시스템리스크 요인 공동분석·평가, ❷거시건전성 규제** 검토·자문, **❸금융·산업 데이터 수집** 확충 **❹국제협력 채널** 구축

2 **(분석역량 강화) 스트레스테스트의 유효성을 제고**하고,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**결과 공유**

○ 업권별·회사별 **상호연계성**을 **주기적으로 파악**할 수 있도록 **금융정보 및 데이터 수집 체계** 구축

* '19년중 시스템리스크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**관계기관 공동 연구용역** 실시

3 **(관리수단 정비) '거시건전성 관리조치**(Macroprudential Corrective Action)' **제도** 도입 및 **금융안정기금 정비**

○ (**거시건전성 관리조치 도입**)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**선제적으로 대비**하고, 위기시 **질서있게 대응**할 수 있는 **정책수단 구비**

○ (**금융안정기금*** **정비**) **'14년말**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 시한을 연장

*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로 '09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, 실제 기금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음

4 기대 효과

◈ 금번 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**비은행권의 잠재취약요인**을 **효과적으로 관리**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

⇨ **비은행권 요인**으로 인한 **시장충격 발생·증폭 소지**를 **차단**하여 **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** 제고 기대

□ (**비은행금융중개**) **유동성 리스크**를 줄이고, **위험도에 비례**하여 금융중개 비용이 결정되는 **시장규율 확립** 효과

☑ RP거래 **익일물 비중 축소**, 금융시스템 부담만 키우는 **단순 차익 추구형 레버리지 거래 축소**, MMF의 **펀드런 유인 완화** 효과
→ 자금시장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효과 예상

☑ RP거래, 채권대차거래,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**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이용**할 경우 **비용부담 증대** →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

□ (**비은행 금융회사**) 대내외 **자산시장 변동, 외환시장 여건** 등으로 **비은행 금융회사가 취약**해질 수 있는 **위험 경감** 효과 예상

☑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**파생결합증권 쏠림 방지** → **특정 기초자산 가격 변동**이 국내 시장에 **과도한 영향**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

☑ **부동산 분야**로의 **고위험 자금중개**(채무보증, 투자 등) 행위 관리
→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른 **비은행권 건전성 저하 소지 차단**

☑ 보험사 등 일부 금융업권의 **과도한 환헤지 단기화**를 방지
→ **외환시장 변동**에 따른 리스크 발생 위험 관리

□ (거시건전성 관리체계) **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**을 **식별-분석-대응**할 수 있는 **정책체계를 구축**

☑ **유관기관-민간전문가가 협업**하여 금융시장의 **잠재 위험요인**을 발굴하고 **방안을 마련**하는 **분석·대응체계 구축**

☑ **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**에 필요한 **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**

<별첨> 1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
2. 「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」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